

# 제주올레 탐방객 현황과 운영 개선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성 용

## 1. 들어가며

2007년 제주올레가 길을 연 이후 제주방문의 주된 목적 1순위가 제주올레 탐방<sup>1)</sup>이라고 할만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반응이 좋다. 제주올레는 현재 21개의 주코스가 만들어졌고, 총 코스 길이는 약 430km이며, 제주지역의 해안선과 꽃자왈 등을 따라 제주도를 일주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현재 (사)제주올레에서는 코스개발과 간세나 코스 표시, 코스 업데이트, 제주올레 끈들을 위한 안내홈페이지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 대해 민간단체가 감당할 수준을 벗어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제주올레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코스를 단기간에 개발했다는 것과 마을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주올레와 관련하여 명확한 역할 분담이 없기 때문에 안전문제나 관리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올레의 탐방객 현황과 현재의 관리 및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1)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2010,3, p106

## 2. 제주올레 현황 및 문제점

### □ 제주올레 코스 현황

제주올레는 제주를 시계방향으로 돌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오른발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 육상이나 스케이트 등 모든 트랙이 반시계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왼쪽으로 도는 것을 훨씬 편하게 느끼고 익숙하게 여기기 때 문에 운동경기에서는 달리는 대상이 반시계 방향이다. 그러나 제주올레는 일상에서 탈피하여 여유와 천천히 제주의 자연을 즐기라는 의미로 시계방향으로 진행한 것 같다. 물론 역코스가 동시에 개발되어 반시계방향으로 탐방하는 올레꾼들도 많다. 제주올레 코스의 많은 부분이 해안마을과 인접해 있지만, 현재 올레탐방객들과 마을주민들이 같이 어울리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올레탐방객들은 제주올레를 탐방하고 마을주민들은 올레꾼들을 지켜보는 수준이며, 오히려 올레탐방객들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나 사생활 침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되고, 지역주민들과 제주올레탐방객들은 같은 공간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괴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1〉 제주올레 코스 현황(자료 : 사)제주올레 홈페이지)

제주올레는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이나 타국으로 진출하였다. 제주올레는 외국에 자매의 길(일본의 규슈올레, 4개코스 개장), 우정의 길(캐나다 부르스 트레일, 영국 코츠월드 웨이, 스위스 체르마트 호수길, 레만호수지역 와인루트)이 개설되어 있다



<그림 2> 자매의 길 일본의 규슈올레 중 사가현 다케오 올레 현황

#### □ 제주올레 탐방객 현황

2007년 제주올레1코스 개장 당시 3,000명을 시작으로 2008년 3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부터는 (사)제주올레에서 탐방객을 집계하였다. 2009년 26만명, 2010년 78만명, 2013년에는 119만명으로 급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구한 제주올레 탐방객의 추정치와 실제 탐방객수를 비교해보면 2010년과 2011년의 추정치가 많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추정과 현황치를 살펴보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제주올레 탐방객 현황 파악을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제주올레 코스별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객들은 7코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코스, 10코스, 1코스도 선호하는 코스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코스 중에서 일부 코스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관광버스나 단체들의 이용이 7코스에 집중되고 있다.

〈표 1〉 제주올레 코스별 이용객 현황 (2009~2013)

(단위 :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64,359	787,708	1,090,876	1,108,522	1,193,727
1코스	48,008	83,014	89,753	67,245	47,178
1-1코스	-	-	19,501	26,900	29,600
2코스	8,972	11,753	16,640	19,520	27,523
3코스	12,365	18,493	24,184	30,663	43,309
4코스	6,284	20,048	31,243	29,213	64,458
5코스	15,584	19,948	34,828	28,168	47,721
6코스	23,375	26,900	94,154	75,064	99,954
7코스	66,607	412,497	403,837	529,155	360,679
7-1코스	1,508	4,939	9,272	9,451	11,580
8코스	25,889	30,390	63,952	47,883	62,629
9코스	7,540	16,461	24,060	30,234	19,992
10코스	14,650	44,058	101,057	50,017	108,625
10-1코스	-	11,341	44,846	20,125	56,684
11코스	11,043	26,147	27,099	16,149	48,443
12코스	9,524	16,357	24,833	21,270	34,128
13코스	7,223	7,915	7,705	9,980	8,730
14코스	4,145	8,162	7,913	8,040	8,700
14-1코스	-	5,078	7,365	13,495	15,374
15코스	1,642	7,006	6,895	7,520	8,390
16코스	-	7,956	9,428	9,120	8,350
17코스	-	3,193	9,380	10,840	13,400
18코스	-	-	7,640	12,400	11,690
18-1코스	-	6,052	21,641	15,330	15,790
19코스	-	-	3,650	9,040	9,300
20코스	-	-	-	7,800	14,070
21코스	-	-	-	3,900	17,430

### □ 제주올레 시설 현황

제주올레상의 기본적인 안내표지는 그림 3, 4와 같은 표지들이 설치되어 있다. 정해진 제주올레 코스의 정방향(푸른화살표)과 역방향(주황화살표)을 화살표로 알려주고 있다.

제주올레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은 간세와 이정표, 안내리본 등이 있다. 설치위치나 지점으로는 간세의 경우 지면에 설치되어 있고, 안내리본은 성인의 눈높이

정도로 나무나 전주 등 제주 올레상의 주요지형지물에 달려있고, 화살표는 노면과 지주대 등에 설치되어 있다. 간세는 올레의 진행방향과 현재 위치가 해당올레에서 얼마쯤에 해당되는지를 알려주는 올레꾼들에게는 반갑고 친근한 존재이다.

또한 제주올레에는 2012년부터 사)제주올레에서 제주올레패스पोर्ट를 발급하였고, 각 코스의 특성에 맞는 스탬프 도안을 했고 각 코스의 출발점에 아래 그림 6과 같이 비치하고 있다. 올레 패스पोर्ट에 올레탐방객이 직접 찍는 방식이며 올레의 시작지점에 올레코스별 특성에 맞는 이미지로 스탬프가 비치되어 있다.



〈그림 3〉 제주올레 코스 안내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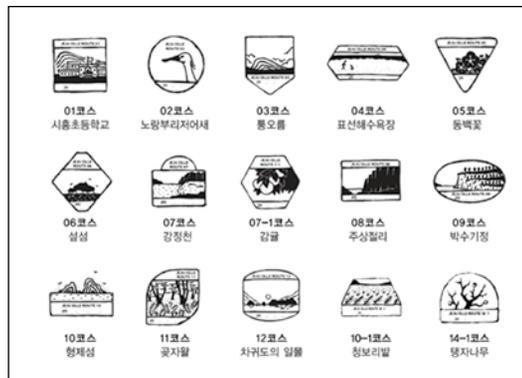
〈그림 4〉 제주올레 이정표(좌 : 화살표(페인트), 우 : 간세)



〈그림 5〉 리본 및 거리표시를 한 간세



〈그림 6〉 스탬프 박스



〈그림 7〉 제주올레 패스पोर्ट와 스탬프 모양

제주올레 주변에는 그림 8과 같이 마을안길도 지나가고 호젓한 숲길 주변에 평상이나 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지나가는 올레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8〉 제주올레 주변의 휴식공간

제주올레에는 이정표나 안내판 뿐만 아니라 그림 9와 같이 제주올레가 지나가는 마을에서 설치한 안내판도 있다. 또한 마을의 특산품을 올레꾼들에게 홍보하거나 마을에서 생산된 가공품을 판매도 하고, 제주올레 주변에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이 있고, 주민들이 땀으로 가꾼 농작물도 있다. 선인장들이 무성한 밭과 바다와 풍력발전기 등은 이국적이면서 올레꾼들의 볼거리가 되고 있으며, 제주올레에는 일상에서 보기 힘든 것들이 올레꾼들을 유인하고 있다.



〈그림 9〉 제주올레 주변 볼거리

제주올레에서 필수적인 시설이 화장실이며, 대부분의 올레코스가 10km 이상의 장거리이고 몇시간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걷는 중에 화장실을 찾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올레가 지나가는 마을내에 열린 화장실이 설치되었거나, 기업이나 사무실의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설 개방은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공간을 열어준 주민들의 마음을 올레꾼들도 잘 이해하여 깨끗하게 이용해야만



〈그림 10〉 제주올레 주변에 설치된 화장실과 안내표지판

다른 올레꾼들이 같은 길을 걷을 때도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올레 코스에는 꽃자왈이나 숲길, 한적한 곳이 많아서 이러한 곳인 경우 혼자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하라는 의미로 지역별 응급연락처를 표시해두고 있다.



〈그림 11〉 제주올레상의 주의 및 관할경찰서 안내표지 등

#### □ 제주올레 지원 예산 현황

제주올레와 관련하여 2010년까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만 지원하였고, 2011년 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담당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환경자산보전과, 제주시는 주민자치과, 서귀포시는 관광진흥과에서 제주올레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올레 관련 예산을 확인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에 제주올레 공향안내소 및 콜센터 운영에 88백만원, 제주시는 2013년에 올레지킴이 운영 등에 308백만원, 서귀포시는 2013년에 올레코스 인프라 구축과 제주올레 홍보마케팅 분야에 509백만원이 사용되었다.

제주올레와 관련된 사업비는 5년간(2009년~2013년) 약 55억원이며, 기관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394백만원, 제주시 2,098백만원, 서귀포시 3,00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올레지기 지원, 간판설치 및 홍보, 올레 시설설치 등에 사용되었다.

〈표 2〉 제주올레 관련 집행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계	855,257	612,231	597,957	2,410,031	1,021,75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	-	-	88,000	102,261	204,261	-제주올레 공항안내소 운영지원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지원 -제주올레 생태관광홍보물 제작 -올레코스별 관리 우수기관 보상
제주시 (주민자치과)	-	325,999	144,578	1,320,200	308,200	-올레지킴이 운영 -올레코스개발관리 개장행사 지원 -올레코스 편의시설 설치 -올레 안내홍보물 제작 배포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855,257	286,232	365,379	987,570	509,296	-올레코스 인프라 구축사업 -올레지킴이 운영 -올레코스 업그레이드 및 시설비 -제주올레 홍보 마케팅 추진

자료 : 제주도청 예산자료

### □ 현황의 문제점 종합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주올레를 찾는 탐방객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제주올레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올레의 기점과 종점이 연결되어 있고, 올레의 중간에서 들어오는 경우나 나가는 경우도 있고, 탐방객들이 출입할 때 측정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해서 정확한 탐방객수 산정이 어렵다. 따라서 제주올레를 찾는 사람들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탐방객 현황 파악에 보다 정밀하고 과학적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련연구에서는 제주올레 탐방객 산정은 제주를 찾는 전체 관광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에서 일정비율이 올 것이라고 가정하여 산정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탐방로 등에서도 탐방객 관리를 위하여 적외선 감지기, 수동게이트, CCTV와 동영상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정확한 탐방객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또한 제주올레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시 연락처와 현재의 위치 등을 보다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상상황 발생시 도움을 주고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탐방객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올레 관련 기관들의 통합관리시스템이 없다. 제주올레가 만들어진 것이 2007년이며, (사)제주올레가 신규코스를 개발하고 이정표를 설치하는 등 제주올레와 관련된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 (사)제주올레가 제주올레 운영의 모든 것을 전담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된다. 제주올레는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닌 제주의 생



〈그림12〉 제주올레 관련 역할분담(현재)

태관광자원 중에서 핵심적인 자원이 되었고, 이러한 위상에 걸맞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과 역할분담만으로는 유지관리가 힘들다고 생각된다.

제주올레와 제주올레 주변 마을주민들과의 연계 및 공감대가 부족하다. 올레꾼들이 기존의 제주관광에서는 보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올레꾼들과 주민들과의 교류나 연계가 적다. 주민들은 제주올레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득 창출과 관련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올레길 조성시 이용자 중심에 초점을 두고 조성함으로써,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마을자원과의 연계, 마을의 정체성 보전 등 주민 주도형이 아닌 외부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직접 연계되지 못하였다.<sup>2)</sup>

### 3. 제주올레 관리·운영 개선방안

#### □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탐방객 파악 필요

현재 탐방객 추정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적외선 인원계수기나 CCTV와 동영상 프로그램을 병합하고 제주올레 시작지점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즉 입구부에 CCTV

2) 제주올레를 이용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2011.11, 제주발전연구원, p. 2.

를 설치하고 동영상프로그램을 가동하면 실시간으로 탐방객들을 확인할 수 있고, 올레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립공원이나 유료관광지의 경우에는 매표소에서 탐방객 산정이 가능하며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에는 공원의 입구부에 적외선 인원계수기 등을 활용하고 있다.

### □ 제주올레 관련 예산 지원과 행정지원 고도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올레를 지원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제주올레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제주올레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제주올레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역할과 제주올레 관련하여 어떤 부분까지 공공의 역할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예산집행 현황에서 제주올레와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전담부서의 총괄적인 큰 그림속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정기관별로 별도로 예산이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예산집행의 효과가 적고, 예산투입 대비 효과도 탐방객들이 체감하기 어렵다. 제주올레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에서 각 기관별 수요를 파악하고 제주올레 협의체와의 논의를 통해서 예산이 계획되고 집행된다면 현재보다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코스의 유지관리는 (사)제주올레와 협의하여 시설물 개선과 설치 등을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경찰과는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제주올레 탐방로 시설 보강

제주올레상에서 탐방객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만큼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선에 있는 위치 표시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표시는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한라산 탐방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탐방로 위치표시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라산 탐방로에는 250m 간격으로 탐방로 위치표시판이 설치되어 응급상황 발생시 이용하고 있다. 한라산 탐방로 위치표시판은 입구부터 정상 및 목적지까지 번호가 250m 간격으로 하나씩 올라가며, 비상 연락처를 같이 표기하고 있어 응급환자 발생이나 탐방로상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정표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 제주올레를 활용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형성 필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올레꾼들을 마을로 끌어당기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제주올레로 나가 올레꾼들에게 판매, 안내, 홍보,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기회로 올레꾼들이 마을을 돌아보고 마을에서 먹고, 자며, 쉬었다 가는 체류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관광 트렌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제주올레에 주민들이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탐방객들이 구매한 제품은 택배로 보내주는 등의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주올레를 이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제주발전연구원, 2011)』 연구에서는 올레탐방객들은 올레탐방에 대한 만족도(79.1%)가 높게 나왔고, 마을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는 직접 마을을 경유하거나 우회하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레탐방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숙박시설,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생산물 판매전략 등 올레 탐방객이 선호하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제주올레가 지나가는 마을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주올레코스당 1~2개소의 ‘올레쉼팡<sup>3)</sup>’의 설치가 필요하다. ‘올레쉼팡’은 안내공간, 홍보공간, 지역특산물 판매점, 피난공간(비, 바람 등) 등의 기능을 부여하여 주민들과의 교류와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올레쉼팡’은 제주올레 주변의 마을과 올레꾼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만남의 공간으로 행정에서는 기본인프라 구축이나 부지면적을 고려한 표준건축안이나 올레쉼팡 건물을 설치해주고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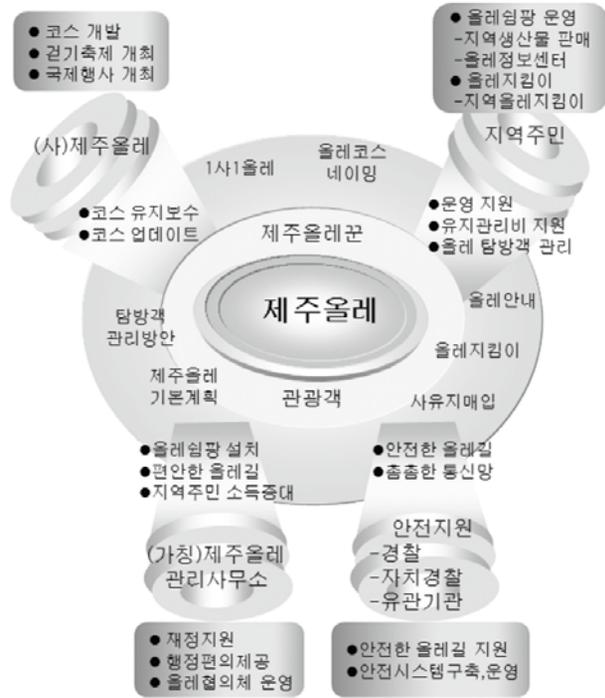
〈그림 13〉 일본의 지역 농산물판매점과 미쯔노에키

□ 제주올레 관련기관간의 역할과 특성에 걸맞는 업무분담

제주올레는 제주관광의 필수코스가 되었고, 제주올레가 관광상품의 하나로 널리

3) JDI 오피니언 97호(2009.11.11) 제주올레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서 올레쉼팡 설치를 제안한 바 있지만, 앞으로 제주올레에 도입되면 제주올레와 지역주민들과의 연계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에서는 코스개발 및 업데이트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행정편의 시설 제공에 협조, (가칭) 제주올레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가칭) 제주올레발전협의회 구성은 행정과 (사)제주올레, 경찰, 학계, 지역주민, 전문가, 여행업체 등으로 구성하고 역할을 나누고 제주올레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청에서는 시급히 제주올레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만들고 전담부서에서 지원해야



〈그림 14〉 제주올레 관련 역할분담(향후)

할 것이다. (사)제주올레는 코스개발의 노하우를 살려서 기존코스의 업데이트 및 코스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가칭)제주올레 레인저(Ranger)를 모집하여 운용하는 것도 올레길의 안전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국내의 사례로는 국립공원 자원봉사단 레인저, 소백산국립공원 유니버레인저(Univer Ranger)들이 백두대간 탐사활동을 하는 것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행정에서 설치해준 올레쉼광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올레지킴이나 올레상에서의 안전한 걷기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안내인이 되고 때로는 올레길의 파수꾼이 되어야만 안전하고 편안한 올레길이 될 것이다.

